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12차, 체계학,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12번째 세션, 체계학,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성경적  
그리스도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 및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전 강의에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특히 동정녀  
잉태에 관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동정녀  
탄생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고려하고 있고, 수년 동안 저는  
신학교 수업, 특히 그 수업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가브리엘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천사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유머러스했습니다. 소규모 수업이었고,  
신학 석사 수업이라기보다는 MA 수업이었고, 여성은 거의 없었지만,  
친절한 여성, 친절한 나이든 여성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 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그녀가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갔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당시 어머니였고 아마도 할머니였을 것이고, 그녀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녀는 제가 우선 이 천사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아마도 큰 남자처럼 생긴 천사 전사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런

다음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제 이웃들이 동정녀 잉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사실인 듯해요.

네 번째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그에게 한 반박,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비판이라고 제안합니다. 불트만이 가르친 것과는 달리, 1세기 유형들은 동정녀 탄생이 흔하고 천사가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독특한 사건이었고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낙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칭찬할 만합니다. 보라, 누가복음 1:38,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이것에 불을 사회적 낙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는 즉시 복종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성경에서 말했듯이 요셉과 마리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의로운 사람들, 즉 가장 좋은 의미에서 경건하거나 독실한 사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요셉의 입장에서 살펴보죠.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과 비슷하게, 저는 수업 시간에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한 번 들었는데, 제가 가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반대 가정을 하셨거든요. 저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조셉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믿지

않았고, 어쩌면 그녀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셉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적어도 그는 걱정할 것입니다

남자 학생들이 "글쎄요, 읽어 볼게요. 그러면 답을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할 때를 위해 . 마태복음 1장 18~2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대 관습에서 결혼의 첫  
 단계이며, 이혼으로 파기됩니다. 기술적으로 실제 결혼은 아니었고,  
 육체적 결합으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성관계 없음, 그것이 깨지려면 이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적 결합을 하기 전에, 그녀는 성령으로부터 아이를 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태는 두 번이나 성령으로부터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 비슷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녀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자  
 학생들에게 요셉과 그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연인 마리아,  
 그들이 헌신한 여자, 그리고 그것이 상호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임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화가 나고,  
 화가 나고,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는 생각은 법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사실이지만, 복음 학자들은  
 이것이 1세기에 실제로 실행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행동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또한 경건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짓밟혔을 것입니다.

내 메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녀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혼이 필요했고, 그는

마음이 상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니,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동정녀 잉태를 알리는 일에 관여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은 이 측면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무엇보다도 성경 이야기의 전개에서 왕족의 칭호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미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같은 표현을 다시 하자면, 성령의 또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그를 예수라고 부르라는 말을 들었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천사 사자를 통해 더 많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세요. 이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적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 신학의 장점 중 하나는 사물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약점 중 하나는 사물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나누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사물을 다시 합쳐야 합니다.

우리가 구절 자체를 주의 깊게 살핀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구절은 또한 속죄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만 빌립보서 2장은 예외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은 그 면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과 24절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행복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취했지만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ESV가 누가복음 1장에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한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못했고,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이 언어는 그들이 나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암시한다.

그리고 로마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단지 사촌일 뿐이지 그들의 자식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로마는 자연을 은혜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은 주님의 이 겸손한 여종, 주님의 종을 통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했고, 예수가 태어난 후, 나의 경건한 목사 친구가 사랑과 성생활에서 결혼 친교라고 부르는 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적으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동정녀 잉태의 남성적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계시하게 했습니다. 천사는 꿈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셉에게 그의 약혼자가 이 기적으로 인해 결혼하기에 좋은 후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매우 행복하고 안도했을 것이고, “나는 내 마리아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들은 순진한 시골 촌뜨기 무리이고 솔직히 말해서 현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볼트만의 이해와는 달리, 그들은 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녀와 마리아를 알고 있었고, 그와 마리아는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그는 이 신의 기적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예수를 입양아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역할을 했으며, 그를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년에 걸쳐 거짓된 답을 찾은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왜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부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첫째, 섹스가 본질적으로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 전의 아담과 이브에 대해 읽었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의 이 측면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번성하고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기와 중세에 걸쳐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부부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수명이 하루씩 단축된다는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원죄에서 자유롭게 태어났고, 성관계가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지만, 많이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다음 이야기는, 오, 예수님은 죄 많은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가 아버지와 그들의 죄성을 통해 전이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간 초과입니다.

예수가 원죄 없이 잉태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죄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가 이 아이의 잉태에 육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로마의 관념과는 달리, 그녀도 죄인입니다.

둘 다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해를 사용하면, 그들은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관해서는,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가 원죄에서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 본문 자체는 마태복음에서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두 번 읽은 바에 따르면, 그녀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것을 묘사하지만, 천사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마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여, 그녀 안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말한다, ESV,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따라서, 예수가 원죄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이유에 대한 진정한 답은 섹스가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 많은 남자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많은 여자가 관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행동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마리아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의 언어.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덧붙여 말하자면, 임하는 언어가 성적 언어라는 것은 몰몬교의 관념인가? 정말 터무니없어. 화가 난다.

아니, 그렇지 않아. 성령은 영이거든, 우선. 세상에.

아니요, 그것은 섹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녀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 아이의 잉태는 하나님, 성령의 일이 될 것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생물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요점인데, 교회의 신조와 고백이 인정하듯이, 그는 참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 네, 아버지 없어요. 하느님은 이것이 특별한 잉태, 초자연적인 잉태임을 보여주려고 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에게 기여하지 않았나요? 네, 마리아가 아기에게 기여했고, 이는 세상 역사상 모든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DNA와 염색체. 마리아의 DNA와 염색체는 예수의 작은 태아 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죄가 부모를 통해 유전되거나 부모를 통해 유전된다면, 그녀의 기여는 죄가 아니었을까요? 원죄에 오염된 죄였을까요? 사실 영혼이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한 신학의 논쟁이 있는 주제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말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것이 죄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죄가 있는 상태로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경건하게 말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소 추측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이해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진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DNA와 염색체를 주었지만, 그의 잉태의 나노초부터 그녀의 기여는 신성시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가 죄 많은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그녀의 기여 자체만으로도 원죄를 물려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죄 많은 기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배아를 이식하신 순간부터, 그 난자, 그녀의 자궁 벽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아는 거룩했습니다.

예수는 결코 죄인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것을 귀속시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속시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임하여 그녀를 덮은 성령으로부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죄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나 생물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어휘력이 좋아졌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수정란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그녀의 자궁벽에 이식하셨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관여했고 마리아는 실제로 어머니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의 영감과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도 성경은 신-인간 상호작용의 산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바로 신의 말씀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성령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감에 대한 정통 교리 성경은 그것이 일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인트루이스에서는 미주리 강과 미시시피 강이 함께 흐르고 있었죠, 맞죠? 하느님께서 모든 오류를 지닌 실제 인간 작가들 안에서, 마리아의 최악에 상응하는, 진정으로 일하셔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만들어내셨다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은 인간의 말로 표현된 것이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지만, 인간의 말은 하느님의 섭리로 인도되어, 하느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말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워필드가 옳습니다. 우리는 작가들이 펜을 종이에 대는 시간, 즉 파피루스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영감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네, 파피루스일 겁니다.

어쨌든, 신은 그들의 전 생애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모세가 파라오의 궁정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광야 방랑의 지도자가 민수기를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고, 그들이 영감을 받아 그들의 전 생애를 포함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특히 그들이 글을 쓸 때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의 심리나 영의 정확한 작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 즉 옛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 필요한데, 망쳐 버렸어요. 예언은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문맥상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사람의 뜻에 따라 나왔지만,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했어요. 즉,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적 측면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인간 작가들을 이끌고 간 결과물이에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아, 즉 하나님에 의해 말씀되어, 결과적으로 그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오한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목적, 모든 목적을 틀림없이 성취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도 전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강조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며, 그에 대한 어떤 이론도 교회의 교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단지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태어나는 아이가 거룩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명백하게 가르쳐졌습니다. 성육신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죄 없는 삶과 함께 십자가와 빈 무덤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우리 주님의 동정녀 잉태를 사용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데려오시고, 하느님의 아들, 신성한 왕을 세상에 데려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하느님의 선한 섭리, 심지어 동정녀 잉태에서의 특별한 섭리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적 역사 신학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선재,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동정녀 잉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영원히 동정녀 탄생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꿀 수 없고,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더 중요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인간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증거를 다룰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히브리서 1장에서 찾을 것입니다.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임을 가르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을 공유합니다. 그는 신성한 본질, 본성, 본질적 존재의 정확한 표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 주님, 인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중 두 가지, 주님과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칭호가 신에게만 그리고 항상 사용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신약과 주변 문화인 인간 주인과 하인이 있는 그리스 문화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오 세상에, 히브리서 1장에서,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주님이고, 그것은 아버지 가 아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호들은 아들의 신성한 칭호로 사용됩니다.

셋째, 아들은 신에게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단논법입니다. 신만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B 성경은 이러한 속성을 아들 에게 돌립니다 . C. 따라서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 진리, 영광을 보았습니다 . 우리는 골로새서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원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현재 필멸의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는 데 행사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변성은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창조물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불변합니다.

그의 세월은 끝이 없고, 그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주장만으로도 충분하고, 이 증거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성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섭리의 일을 하시고, 그의 창조물을 유지하시고 그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다고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다섯 가지 증거 중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창조하시고, 섭리의 일을 하시고, 구속주이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 구절이네요. 다섯 번째 증거는 신약성서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즉, 예수는 경배를 받는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다.  
맥락은 선한 사람들은 받고, 경배를 거부하고, 실례합니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경배를 거부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미래에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이러한 계시에 압도당합니다. 그는 쓰러집니다.

한 번은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한 번은 경배하기 위해 엎드린다고  
말합니다. 두 번 다 천사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걸 틀렸어요. 아니요,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늘 자체에 들어가실 때 경배를 받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그를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사람도 그를 경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매우 느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 딸, 사랑하는 하인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치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예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맏소사, 요한복음 9장에서 저는 이전에 눈먼 사람이 기독교 예배와 매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요한 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신학적으로 더 발전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닐 겁니다. 도마는 유대인 동료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20:28, 종말에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절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10, 11, 그 모든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못해 절할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증거가 모두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맞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위대한 구절의 시작과 끝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중 어느 것도 이 네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을 읽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읽고 싶습니다. 장 구분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그것은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서 연구 또는 중세 시대의 성서 제작에 대한 베네딕트 워드의 이야기는 매혹적인 읽을거리입니다. 1200년대 파리의 학자, 파리의 교수들은 성서에 장을 넣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경연 대회를 했고, 한 사람이 이겼고, 그것이 우리가 챕터 구분을 얻은 곳입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구약학 교수인 앨런 맥레이가 있었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가 학교 학장으로 있을 때 그의 지도를

받았지만, 그는 수업 시간을 지나서, 저는 그저 하급 신학생이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는 결코 한 장의 끝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다음 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요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그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1~4는,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1:1~4는 적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옳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2:1~4는 히브리서 1장의 적용입니다. 오래전에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기원에 동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구약과 신약 사이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구분은 타락 전과 타락 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구약과 신약이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일련의 대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약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면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또는 그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대응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그의 아들, 신약에 의해. 큰 대조.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소년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신성한 칭호를 봅니다. 그것은 선행하는 첫 번째 말씀과 빛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 히브리서 1장에서 봅니다. 그의 아들,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는 끝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창조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시작입니다.

세상에, 아들은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여러 번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는 아들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본성의 정확한 표상입니다. 그는 죄를 정화한 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지탱합니다. 그 작은 구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7, 8, 9, 10장의 주요 주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대한 희생적 그림을 소개합니다.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죄를 위해 정화를 하거나 죄를 위해 정화를 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났다고 가르치고, 따라서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가르칩니다.

더할 수 없고, 완성되고 완벽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죄를 정화한 후, 그는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상속받은 이름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지? 펼쳐지는 구절에서 드러나는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가 맏아들을 세상에 데려올 때, 그는 “모든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그는 천사들에 대하여,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시종들을 불꽃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장. 그러나 아들에 대하여, 그는 말합니다. 오 하나님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의의 홀은 당신 왕국의 홀입니다. 이것은 시편 45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큰 기쁨의 기름으로 당신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상의 왕들입니다. 그것은 왕권의 기름 부음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땅에서 하늘의 지상의 왕이 될 하늘의 왕입니다.

주님, 당신은 시편 102편을 인용하여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옷처럼 당신은 그들을 말아 올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들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똑같고 당신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천사에게, 내가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그 대답은 '그렇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들과 천사 사이의 이 정교한 대조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그보다 더 정교한 대조입니다.

1절과 2절을 고려하면, 아들은 1절과 2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조됩니다. 선지자들은 천사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들은 둘 다 계시의 중재자입니다.

둘 다 계시의 중재자입니다. 선지자, 오, 알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는요? 신명기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두 번이나 명확히 밝혔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을 적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제 생각에는 그 이름조차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우 명백하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19. 약속이 주어진 자손이 올 때까지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시나이 산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재자가 천사의 수많은 천사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본 모든 주석은 그것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재자입니다.

그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재자는 한 명 이상을 의미하지만, 신은 한 분입니다.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사를 통해 이것을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천사는 율법을 주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조는 선지자와 천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자. 그들은 그를 경배합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그가 가져온 계시가 그들이 가져온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더 나은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경고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장을 말하는 것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는 3절에서 제사장이며 죄를 정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절에서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최고로,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을 때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4절부터 끝까지 전체 장이 보여주듯이요.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선지자와 천사, 예수를 이런 식으로 구약 계시와 새 계시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떼내려갈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위대한 경고 구절입니다. 천사들이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율법이며, 그것은 신뢰할 만했고 모든 범법이나 불순종은 정당한 보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처음에 주께서 선포하신 것이요, 분명히 예수라는 뜻이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이적과 성령의 은사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심으로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문학적 맥락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의 단위이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구약의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며, 특히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러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과 복음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바로 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심판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어떨까요? 저자는 나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무엇인가요? 역사적 맥락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적어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문학적 맥락을 꽤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역사적 맥락 : 히브리서는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공언하기 위해 쓰여졌고, 우리는 그들에게 공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서 압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가는 처음부터 말합니다. 1 장의 이 위대한 높은 그리스도론이 4장에 두 번째로 적용되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자살입니다.

예수는 중보자,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언급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약속된 대로입니다. 그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참된 복음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히브리서 1장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위대한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다섯 가지 위대한 역사적 증거를 보고, 각 요점에 대한 다른 그리스도론적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체계학,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입니다.